

**동우컴퓨터**

주의 뜻을 이루자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지혜자의 말이 왜 옳은지 나는 기도원에 있는 내 가묘 앞에 서면 알게 된다.

기도원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내 가묘다. 그 앞에 서면 번번이 인생사 생각이 깊어지고, 나를 반추하게 되니 참 묘하다. '이 곳에 묻혔을 때 나는 어떤 목사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흠족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비운다고 비우고 있지만, 혹여 실오라기 만큼이라도 세상에 미련이 있거나 소유욕을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여 내 성도들이 애정 결핍은 아닐까?' 그리고 다짐한다. '그래, 초석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자! 너는 할 수 있어.'

사도 바울 말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참 불쌍한 자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행복한 자요, 부유한 자로 자부하는 것은 그날 주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 열 고을의 왕권, 칭찬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명예롭고 근사한 타이틀이 아닌 '주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나는 민족, 감사하며 산다.

몇 년 전,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가 암에 걸렸었다. 나는 그에게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하라. 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애달파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라. 그리고 네 마음에 잡초, 곧 네 속의 쓴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줬다. 그는 아버지처럼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그 후 병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겨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다. 그는 지금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다. 예외 없이 유통기한의 삶을 산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다.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에 부도내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자. 그래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자.
그것이 삶의 목표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자.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믿음은 위기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라 강조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반드시 악한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장을 바사 국군이 막아서 올 수 없었는데 군장 미가엘이 길을 열어주어 21일

시 응답으로 알고 대구행 비행기를 탔습니
다. 대구 공항에 내리니 택시가 보였습니
다. 부산까지 가자 하니 신혼부부가 예약
한 택시라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저씨, 신
혼여행이고 뭐고 태풍 때문에 아무도 안와
요. 갑시다.’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앞자
리를 찢히고 부산 구덕체육관에 도착할 때
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고, 무사히 집
회 시간 전에 도착하여 대역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강화에서 집회를 마치고 대구집회를 위해 김포공항으로 가야하는데

해야 하는데 위기가 온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단호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족, 친지로부터 온갖 비난이 쇄도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용신할 틈도 없는 가운데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집회에 갈 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가는데 루프트한자 항공사 파업사태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겁니다. 호텔방에 사흘을 갇혀 기도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니 못 간다 해도 사실 상



2014 베네수엘라 과레나스 집회 광경

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록이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위기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20여 년 전, 부산 구덕체육관 집회에
가기 위해 지금은 돌아가신 믿음의 어머니
와 김포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방에 태풍이 몰려와 모든 항공편이 결항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항보안경찰에
게 부탁하여 빈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
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어머
니는 차로 내려가자고 하셨지만, 내가 믿
는 하나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
령하며 3시간 넘게 부르짖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태풍이 남진하여 대구까지 가
는 항공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즉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차가 꼼짝 앉는 겁니다. 차 안에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바로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놓친 겁니다. 즉시 깨닫고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몇 미터를 달리다보니 뒤에서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군요. 무조건 잡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썰이 실려 있었습니다. 짐이 실려 태워줄 수 없다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청했습니다. 그러자 약 100m 떨어진 자기 가게에 쌀을 내려놓고 나를 김포 공항까지 데려다 주어 무사히 대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 은석감리교회에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보니 그날이 어머니 회갑 날이었습니다. 7남매의 장남인 내가 모든 것을 주관

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뜨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집회장으로 가야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나는 식을 전폐하고 비행 내내 오로지 기도하며 베네수엘라에 도착하였고, 바로 루이스 목사 교회로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며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편에 서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언제나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섰습니 다. 핑계대지 않았습니 다. 오직 방법을 구 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걸 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모두가 나의 믿음을 닦기 바 랍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4:23)

네 마음속의 꿈을 도적맞지 말라

여러분, 집도 지켜주는 이가 있고, 가족도 지켜주는 이가 있고, 기업도, 국가도 지켜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대신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꼭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잠4:23). 죽고 사는 것,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천국과 지옥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말씀이라는 씨를 길 가에 뿌리고, 어떤 자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자는 가시떨기에 뿌리고, 어떤 자는 좋은 땅에 뿌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는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종자가 다르고, 질이 다른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씨를 뿌렸건만, 어떤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까지 거두고, 어떤 자는 아예 싹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밭에 뿌렸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무엇을 뿌렸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에 뿌렸느냐,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꿈만큼 성장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일부러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마음 밭에 희망과 꿈이라는 씨를 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 ‘올해는 결혼해야지’, ‘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야지’, ‘건강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립니다. 문제는 씨를 뿌리고 나서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때에 맞춰 비가 오고 적당한 태양이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씨를 뿌리면 꼭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거나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와서 씨를 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네 실력에 무슨 좋은 대학?”, “피아노 전공했다고 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면 세상사람 다 되게?” 이렇게 씨를 쪼아 먹고 파먹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하는 줄 압니까? 대개 내가 믿었던 가족,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니 더욱 낙담하게 되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교구’라는 씨를 마음에 심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철산에루살렘교회’를 ‘한국에루살렘교회’로 바꾸려고 할 때 “이 목사, 무슨 한국에루살렘이야? 그냥 철산

이라고 해.”라고 말한 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이구, 잘했네. 이 목사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을 사람이야.”라고 격려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착잔의 돌풍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교계의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족까지 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린 싹을 냈을 뿐인데 태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세계교구는 고사하고 제 마음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제 꿈을 도적맞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

그렇

게 버티

면서 지키

니 줄기가 나오

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슬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고, 가뭄과 홍수도 이겨내고, 수없는 벌레가 파먹는 아픔도 이겨내고, 동네 아이들의 발길질도 참아내는 세월을 거쳐야 거목이 됩니다. 그러나 거목이 되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큰 그늘이 생겨서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씨를 심었습니까? 어떤 꿈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꿈은 자고로 커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겠지요. 네 주제를 알라고, 네 분수를 알라고. 그러나 분수라는 잣대로 꿈을 재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위대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탄해서 꿈을 이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지

켰기에 당당히 꼭짓점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왜 그리 우왕좌왕하고, 뻥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마음을 흔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전력이 있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정신을 차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마리의 짐승이

살

고

있습니

다. ‘된다’

는 짐승과 ‘안

된다’는 짐승, ‘긍

정’의 짐승과 ‘부정’의 짐

승. ‘행복’이라는 짐승과 ‘불행’이라

는 두 짐승이 상존하는데, 어느 것이 이기느냐는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은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세상사 일체유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씨를 심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꼭 외부적인 요인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조급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매일 밭에 나가서 싹이 났나 안 났나 하며 땅을 뒤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잘 자라겠습니까? 토끼가 밥을 짓는다고 하면서 계속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 밥이 설지요. 곰처럼 뚜껑에 올라 앉아 ‘아~~ 뜨거.’ 하면서도 뜸이 다들 때까지 기다려야 노인도, 아이도 맛있게 먹는 밥이 되는 겁니다. 과수원에서 3년째에나 과실을 거두고, 대나무는 5년이 되도록 지면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cm씩 자라 순간 30미터 이상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합

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 그리고 이초석 목사가 15년을 기다려 꿈을 이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꿈을 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지키지 못하고 도적맞았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대째 선전적 소경인 바다매오가 눈을 뜨겠다는 꿈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보셨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낫겠다는 소망을 끝끝내 버리지 않은 것을 아시지요? 거만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간 과부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보셨지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꿈 때문에 흥분한 이초석 목사를 보셨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꿈을 포기합니까?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마귀란 놈은 다른 것보다 마음을 훔쳐가고 싶어합니다. 왜냐? 마음을 빼앗기면 몸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마음만 도적질하면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치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 밭에 뿌려놓은 꿈을 도적맞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꿈이 흐려질 때마다 한 것은 기도였고, 이초석 목사도 위험과 핍박으로 인해 꿈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인류구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매진하면 반드시 꿈은 이뤄집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각 분야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나기를, 이 교단에서 통치권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꿈이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밭에 심은 꿈이 도적맞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길쌈을 메고 소독을 하듯 노력하고 애쓰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공의와 사랑

소설 ‘데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고
소되었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담당 판사
는 장발장에게 벌을 주는 것이 판사로서 해
야 할 공의로운 일이었지만, 소년의 딱한 사
정을 감안하여 빵 값을 빵집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든 후 소년
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선택하
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우리 인간에 대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실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
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 용서, 그리고 공의로움을 실행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죄
에 대한 대가로 아담에게는 평생 일하도록
하였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
로 인간을 최악에 빠트린 사탄을 일시에 멸
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편안히 계
속 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공의롭다’함
은 모든 대상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시
려 하신다면 인간도 멸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은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저
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멸하지
않기 위해 사탄을 일시에 멸하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 인간에 대한 깊
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
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현
실 앞에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
일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은 예
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탄
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함께 인
간도 같이 멸해야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님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
시고 우리와 같이 영생하시고자 하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함에 있어 용의
주도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메시
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은 죽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
사랑, 직장 동료사랑, 소외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
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 신앙논객 ::

하나님과 싱크를 맞춰라

지난 주일이였다. 노랑진 교육관에서 1부
예배부터 유튜브로 영상을 틀었는데, 찬
양하는 인도자의 영상과 소리가 서로 맞
지 않았다. 유튜브 창도 새로 띄워보고,
컴퓨터를 재부팅도 해보고, 본부에 연락
도 취해보고 별짓을 다했지만 예배가 끝
날 때까지 싱크(Sync)가 맞지 않는 현상
이 계속됐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한 성도
들과 교역자들은 무언가 시스템이 잘못
되었음을 감지했고, 몇몇 사람들은 담당
자인 나에게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
다. 휴대전화로는 잘 송출되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레
서 2부 예배부터는 최대한 안 맞는 싱크
를 맞추려고 영상은 PC로, 소리는 휴대
전화로 내보내기도 했고, 다행히 3부 예
배 때부터는 유튜브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배 영상을 내보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
다. ‘영상이란 소리 싱크가 조금만 안 맞
아도 이토록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불편
한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제대로 싱크
를 맞춰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뒤쳐져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라도 소

리와 싱크가 맞아야 그 영상을 통해 얻는
감동이 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종 사인과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셔도
싱크가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전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종종 듣는
라디오는 주파수가 조금만 안 맞아도 잡
음이 섞여 나와서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
없다. 방송국은 잘못이 없다. 제대로 그
방송국이 송출하는 주파수로 맞추지 않
은 사람이 잘못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
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수많은 영적 리더
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각자에게 꿈과 계시와
환상과 감동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
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 하나님께로 주
파수를 온전히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에 둔감한 내 잘못이다.
몸에 이상이 있고 아픈 건 사실 본인이 제
일 잘 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
는지도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고 느
끼고 있다.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도 가만
히 있다면 그는 문둥병자요, 살아있지 않
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과 나는 지
금 싱크가 잘 맞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
은 바로 나에게 있다. 신혁주 전도사

말을 바꾸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
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
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를
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
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
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
면서 다시 알지.”
이해인 시인의 ‘나를 키우는 말’이다.
근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장기화되
고 있다.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다며 소
리를 높이고, 불만과 불안은 더욱 고조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
고 어렵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원망, 불
평,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 믿음을 말하며 희망을 품고 그 열매를
기대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
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더니 이삭을 통
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 또한 솔로
몬은 사람이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며(잠
13:2),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잠18:21).
하나님께서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며 그대로
이루셨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이 산더
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
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 말씀하
셨다.
부정을 말하면 부정이 지배하고,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힘이 지배하게 된다. 문제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문
제의 힘보다 크고, 희망의 말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된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
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이 율법을 ‘황금율법’이라 한다. 최근
‘고객 만족’이란 말을 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
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
찍이 제시하신 황금률 정신이다. 예수
님께서 고객 만족의 중요성을 2000년
전에 미리 일깨워주신 것이다.
워싱턴 인터스트리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존 맥코넬에 의해 창립되
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놀라
운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자 행정 관
료들까지도 그의 성공비결을 배우려고
회사를 빈번히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때마다 맥코넬은 자신의 성공비결은
황금률을 실천한데 있다고 말했다. 남
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
가 먼저 그에게 실천하는 황금률 정신
이 성공비결이라고. 예컨대, 제품을 생
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고객의 입장
에 서서, 그가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무
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헤아려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코넬은 말
한다. “우리 회사는 황금률 회사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
지로 바꾸어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방
식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렵지만, 그러나 이를 실행해보면 그 어
려한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황금률이 인간관계에서 대접받는 방법
이요,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방법
이다. 하루 종일 직장 일로 많은 스트레
스를 받은 한 그리스도인이 피곤한 몸
으로 퇴근한다. 집에 도착하여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짧은 기도를 드린
다. “주님, 제가 지금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명령하
신 황금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
세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한 얼굴로
가족들을 환영해주겠습니다. 가족들이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
주고 위로해주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
주고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줘서 고맙다고...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퇴근하는 이 사람이나 집에서
그를 맞이하는 가족이나 황금률을 실천
한다면 다음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펼
쳐질까요?

임택함 목사

기본에 충실한 육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바다, 아니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에 있어서도 이게 좋다더라 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게 좋다더라 하면 저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깊게 생각하기보다 여기저기 휩쓸려 잘못된 방식의 육아를 하기도 한다.

육아의 기본은 무엇일까. 아이를 키움에 있어 기본이라 함은 먼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또한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그에 맞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양육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에 맞

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를 잘 찾아 키워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비싼 책을 사주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빌려서 보여줄 수 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부지런히 알아보면 된다.

평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오은영 선생님의 책이나 방송들을 즐겨보는 데 한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는 말이었다. 맞다. 부모는 아이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잘 키워야 한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하고 또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소양을 갖춘 전인적인 인격체, 즉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도 기본에 충실하자. 방치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깨끗한 환경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키워보자.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보자. 힘내보자. 누가 봐도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키워보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훗날을 기대하며.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 짧은 이야기 ::

성공에 왕도는 없다

히말라야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고의 등산가에게 물었다. “세상에 이 높은 산을 정복한 비결이 도대체 뭘니까? 강인한 체력입니까? 뛰어난 등산 장비입니까? 지독한 훈련 덕입니까? 적절한 팀워크입니까?”

기자는 답변을 들으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사포 같은 질문

을 퍼부었다. 다 듣고 난 후, 등산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결은 무슨 비결입니까? 그냥 산 정상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산 정상에 이르더군요.”

기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다. 성공에 왕도는 없다. 잔꾀를 버리

고 매일 매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성공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예수중심편집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뱀같이, 비둘기같이

어느 날, 지인이 심각한 목소리로 조언을 구하며,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대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강조하고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일이 잘못되어 민사재판에 불려나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그 문제에 대해 물었으나 친구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친구는 다른 문제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서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의 친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리해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본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이지만, 자신이 친구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망설였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걱정되어,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

고 싶어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냐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조언한 대로 실행하고, 그 문제에서 신속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말씀하시니 어느새 각인되어 조언했지만, 사실 저도 좋은 사람이 될지, 분명한 사람이 될지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의로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뻔했으나 119구급대에 상세한 신고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어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 상대와 꺾꺾더라도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부당한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분명히 한 덕분에, 이후 곤란한 상황에서 역전되었던 일 등등, 직접 경험해보니 목사님 말씀처럼 번거롭고 꺾꺾더라도 처음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역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기억조차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언제든지 스스로 여러 수단을 통해 증거를 남

기거나 모르는 사이에 수집된 증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각종 문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공증 받을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손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녹취를 함부로 공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려면, 먼저 내가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옹아매는 울무로 돌아올 테니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분명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정명관

왕 앞에서는 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

얼마 전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었다. 그는 정치인, 사업가, 발명가, 문필가로 모두 성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계발과 시간 관리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근면, 성실, 부지런함을 늘 교육받아왔고, 그것을 늘 생활화하고 근심히 실천하던 그였으나, 위성경 말씀의 뒷부분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만큼은 사실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으나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뒤늦게 고백한다. 본인이 믿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지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간 다섯 왕을 만났다고 말이다. 이처럼 짧은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도 세상을 능히 지배하는 것을 보고 다시금 놀란다. ‘주위에 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이미 각국의 여러 대통령을 만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목사님께서 늘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충성하니 이 말씀이 이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고 근심히 노력해보자. 그러면 언젠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잠시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